“교회 가며 듣는다”…‘스님 버튜버’ 방송 ‘인기만점’

불법 스님 첫 일요법회 방송… 1200명 시청

천수경 · 반야심경 봉독 등 ‘여법’
‘윤회 · 업’ 주제로 불교교리 전해
두 번째 방송 1600명 동시접속
시청자 질문에 실시간 답변 · 소통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대한민국 치직산 의문사 청정수월도량에서 금월 금일 지극한 정성으로 공양하며 발원하는 각 처에 거주하는 오늘 모인 범불비들이 이 인연 공덕으로 제불보살님의 오묘한 가피력을 받아서 일체의 재앙과 장애 사라지고 가정이 모두 화목하며….”

‘치직산 의문사(疑問寺)’의 법회를 주관한 법사 ‘불법(佛法) 스님’의 축원 중 일부다. ‘치직산 의문사’는 네이버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에서 한국 최초 ‘현역 스님 버튜버’인 불법 스님이 주석하는 가상의 사찰이다. 축원 속 ‘범불비’는 불법 스님 채널의 팬네임.

‘스님 버튜버’ 불법 스님의 첫 일요 정기법회가 8월 10일 오전 10시에 봉행됐다. 일요일 아침임에도 800~900명대로 시작한 방송은 최대 동시 접속 인원 1260여 명을 기록하고, 법회 방송이 끝날 때까지도 1100명대를 유지했다.

그들이 소통 · 응원하는 법

이날 일요정기법회는 〈천수경〉 봉독·거불·유치·청사·예참·정근·축원 등 불공의식부터 〈반야심경〉 봉독, 법문, 사홍서원까지 여법하게 봉행됐다.

첫 정기법회에서 눈길을 끌었던 것은 스님과 시청자들의 소통과 응원 방식이었다. 〈천수경〉부터 〈반야심경〉까지 염불과 독경이 이어지자 참석 대중들은 기도, 절 모습과 비슷한 이모티콘 등을 찾아 함께 호흡하며 응원했다.

불법 스님도 법문 등을 위한 PPT를 제작해 불교 역사, 교리 등을 전했다.

불교 교리부터 인도 고대사까지

이날 법회에서 불법 스님은 윤회와 업을 주제로 법문했다. 첫 정기법회의 법문인 만큼 인도의 사회 경제적 상황을 비롯해 브라만교와 육사외도에 대한 주요 교리와 인물을 알기 쉽게 설명하며, 윤회와 업이라는 개념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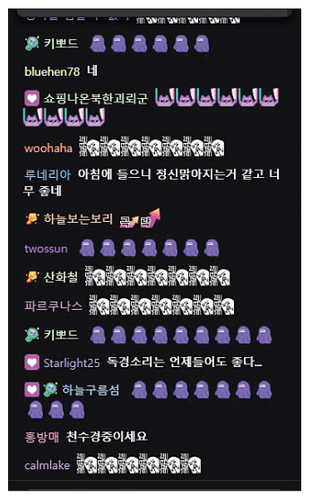
시청자들의 질문에도 성실히 답했다. ‘기독교는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데 불교는 누가 세상을 창조했는가’라는 형이상학적 질문에 대해 부처님께서 답하지 않았던 ‘14무기(十四無記)’와 ‘독화살의 비유’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불법 스님은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에 태어난 것이 독화살을 맞은 것과 같다고 했다. 그렇다면 당장 화살을 뽑아 해독제를 바르고 치료해야 하는데, 형이상학적 질문은 화살을 누가 쐈는지 화살촉의 재질이 무엇인지 등을 알려고 하는 것과 같다”면서 “부처님은 이처럼 비유를 들어 제자들과 신도들에게 법을 설하셨다”고 답했다.

시청자 1200여 명의 호응은 뜨거웠다. “나 이거 왜 계속 듣고 있냐”, “진짜 법회잖아”, “일요일 아침부터 경건하다”, “엄마랑 같이 듣는데 엄청 유익하고 재미있다고 합니다”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심지어는 “교회가면서 염불과 법회를 듣는다”는 시청자도 있었다.



8월 10일 진행된 스님 버튜버 불법 스님의 첫 일요정기법회 방송. 불공을 진행 중이다.



불법 스님의 염불과 독경에 맞춰 올라온 이모티콘들.

두 번째 방송 1600명 동접 ‘안착화’

앞서 8월 7일 진행된 버튜버 불법 스님의 두 번째 라이브 방송은 최대 동접 인원이 1600여 명에 달했으며, 평균 1300명이 마지막까지 스님의 방송을 시청했다. 두 번째 방송 후에는 1만6000명이었던 플랫폼 팔로워가 1만7000명으로 늘어나며 안착화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7일 방송은 108개의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이는 한 달 전 데뷔 방송에서 받았던 질문 중 소개하지 못했던 질문들을 정리한 것으로 스님 개인사부터 불교 교리, 신행 방법들을 묻는 질문들이 이어졌다.

특히 불법 스님은 방송을 하는 목적이 ‘포교’임을 분명히 했다. 스님은 “일상에서 스님을 만나기란 쉽지 않지만, 방송을 하면 쉽게 만날 수 있다. 스님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친근감을 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방송을 하고 있다”며 “유튜브에 여법하고 스님다우신 스님들의 콘텐츠들이 많고, 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불교를 배울 수 있다. 저는 음지에서 여러분들을 양지로 밀어 올리는 역할이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9일 네이버 치지직에서 파일럿 방송으로 버튜버로 데뷔한 불법 스님은 당일 최대 동시 접속 4000명을 기록하며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불법 스님은 앞으로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정기법회를 봉행하는 한편 평일에는 저스트 법담, 염불, 게임 방송 등의 콘텐츠를 운영할 예정이다.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⑥ 일체유심조

지금 여기, 마음의 작용

一 切 唯 心 造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불교의 핵심을 담고 있는 이 말은, 다양한 측면에서 오남용이 심하다. 신이 천지를 창조했듯 마음이 눈에 보이는 만물을 만들었다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 또는 어떤 어려운 상황을 굳은 의지로 극복하는 논리로 사용하기도 한다. 심지어 차별과 불평등한 사태도 해석하기에 따라 긍정적일 수 있다며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기도 한다.

불교의 마음 사상을 대표하는 이 구절은 〈화엄경〉 ‘야마궁궁게찬품’에 있다.

약인욕요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若人欲了知 三世一切佛 應觀法界性 一切唯心造).

만약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법계의 모든 존재가 곧 마음의 조작임을 통찰하라. 이 세상 모든 존재는 마음의 조작이라는 요지다. 60권본 화엄경에서는 ‘일체유심조’ 대신 ‘심조제여래(心造諸如來)’라고 말하고 있다. ‘마음이 모든 여래를 출현시킨다’라는 뜻이다.

여기서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는 글자는 바로 ‘조(造)’이다. 직역하면 ‘만든다’라는 말인데, 이 말이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각자 편의에 따라 사용한다. 창조(create) 혹은 조작(make)이 아니다. 일체유심조에서 ‘조’의 뜻에 가까운 용어는 ‘즉(卽)’이고 ‘시(是)’라 할 수 있다. 마음의 모습이 ‘곧’ 부처이고, 마음의 작용이 ‘곧’ 부처라는 뜻이다. 마음이라는 고정불변의 실체적 주체에서 부처가 창조되거나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의 마음 모습과 그 마음 씀이 ‘곧’ 부처라고 한다. 쉽게 풀이하면 욕탐(欲貪)과 무지와 투쟁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곧바로 아귀 중생이고 아수라 중생이 된다는 뜻이다. 일체유심조는 행위와 결과의 업보 원리를 마음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마음 모습과 마음 작용이 자신의 존재를 규정한다.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대상도 마음의 투사와 반영으로 규정된다. 대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대상이 다르게 보인다. 대상은 나의 의도와 욕구가 반영된 대상이다. 푸른 산을 경건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고 개발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대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다. 결코 동일한 산이 아니다.

독일 철학자 에드문트 후설(1859~1938)도 현상학에서 우리가 아는 것은 ‘사물 자체’가 아니라, 의식 속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말한다. 어떤 지향성에 따라 사물이 규정된다는 뜻이다. 그러니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늘 나를 점검해 보자. 지금 여기, 나의 마음은 어떤 모습인가? 지금 여기, 나는 어떻게 보고 행위하고 있는가?

〈화순 불암사 주지〉

만해사상 실천 논하는 문학축전 열린다

만해사상실천연합 창립10주년
29일 심우장 만해평화문학축전

만해 스님의 사상과 유훈의 실천 방법을 논하기 위한 문학축전이 열린다.

사단법인 만해사상실천연합(이사장 홍파 스님)은 8월 29일 오후 2시 서울 성북구 심우장에서 ‘제10회 심우장 만해평화문학축전’을 개최한다.

만해사상실천연합 창립 1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축전은 ‘만해사상,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주제로 심포지엄, 시낭송, 뮤지컬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행사는 총 4부로 진행된다. 제1부 만해 탄신 146주년 다례재 및 창립 10주년 기념식에서는 관음종 종정 홍파 스님이 법문을 설하며, 세계평화와 인권을 위한 메시지와 남북한 국민에게 보내는 평화 메시지가 발표된다.

제2부에서는 조계종 어산어장 동휘 스님의 범패 ‘도량게 작법’이 설행되며 만해 스님의 생애를 다룬 뮤지컬 ‘심우(尋牛)’ 공연도 진행된다.

제3부 만해사상 심포지엄에서는 ‘만해사상,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주제로 △만해의 평화사상과 그 계승을 위해(허우성 경희대 명예교수) △만해 한용운의 독립정신과 민족통일: 평화통일 담론에 관한 비판적 검토를 겸하여(김용섭 전북대 명예교수) △만해학의 현황과 과제(김광식, 전 동국대 특임교수) △심우장, 기억의 집에서 실천의 공간으로: 장소성 변화를 중심으로(김지은 성북구청 학예사) 등이 발표된다.

제4부 만해예술의 향연에서는 만해 스님의 시 낭송과 찬시 발표, 가곡 독창 등 문화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간단하고 직접적인 불교명상 안내서

통찰의 체험

현대 명상 지침서 가운데 가장 쉽게 읽을 수 있는 최고의 책이다. 수십 년 전에 출간되었지만 명상을 배우는 사람에게 여전히 신선하고 살아 있는 안내서 역할을 한다.

조셉 골드스타인 지음, 이재석 옮김/신국판/248쪽/값 18,000원

재가 거사가 법을 설하다!

유마경



공과 무상, 불이사상을 담고 있어 대승불교의 근간이 되면서 선불교의 철학적 기초를 제공하는 유마경이 혜원 스님의 현대적 예화와 강설에 의해 새롭게 다가온다.

혜원 강설/신국판변형/양장/320쪽/값 21,000원

페미니스트는 불교도가 될 수 있는가?

젠더를 넘어서는 불교

저자는 여성과 남성 공히 젠더 정체성에 갇혀 고통받고 있으며, 젠더 정체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은 불교의 무아, 공성에 대한 깨달음에 있음을 보여준다.

리타 그로스 지음, 김민정 옮김/신국판/272쪽/값 2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